

- 창간호 -

삼 선

부지런하자
교 훈 성실하자
서로 돕자



〈서시〉

눈오는 날 소묘

— 삼선인의 꿈에 실어 —

교사 류근택

산사어로 눈, 눈, 눈

적막강산에서만 살아온 홀어미의
눈섭 기슭에 해설픈 미소에

먼 여로가 끝난 바람처럼

숨이 차서 초옥 지붕에 안긴

꽃잎의 실래이는 가슴 위에

덮여 누르느

그리운 님의 침묵이나 삼킬 것을

형— 해서 마냥 슬픈 여인은

물동이 이고

샘터에 나갔더라도

눈이 녹으면

내일은 황혼.

그래도

산꼭에 울리는 메아리는

성대가 약해서

섬세한 손길 흔들며

눈이 내린다.

기웃한 설악에

설익은 내 꿈은.....